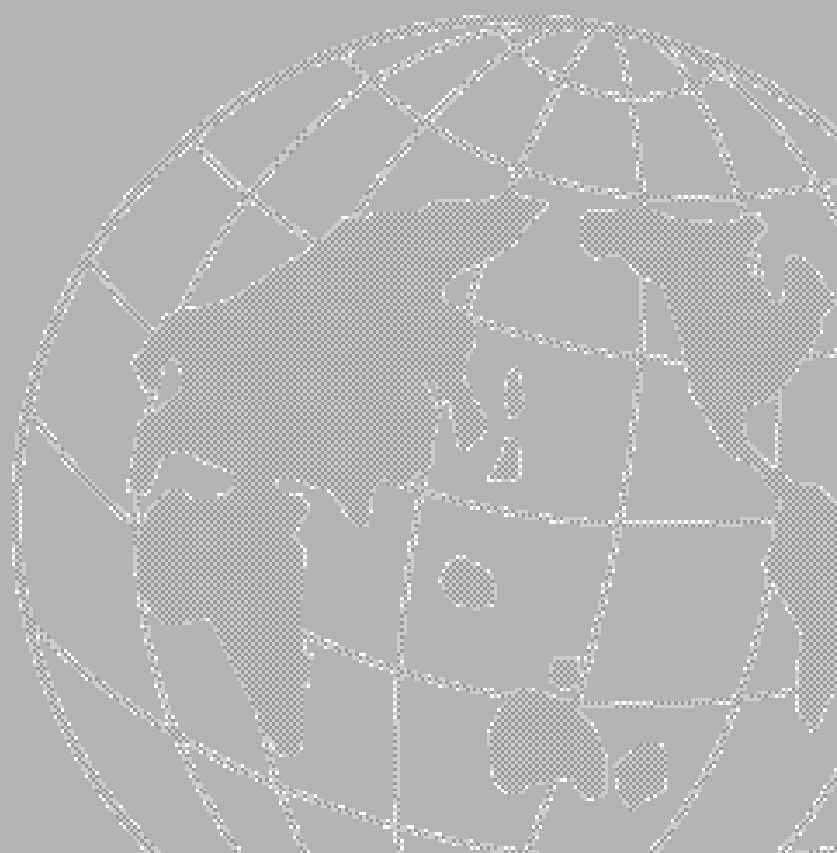


회원칼럼 / 신간안내



新年萬感

박 창 남*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니 생각나는 일이 많아 그저 두서없이 적어보기로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술국치(庚戌國恥)도 100周年이 되고 6·25전쟁(6·25사변; 한국동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도 60년이 지났으니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을까 하고 새삼스레 손꼽아본다. 그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바뀌어서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경술국치 100주년이니 우선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생각난다.

독도문제, 역사왜곡문제, 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징용자 연금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문제 중 단 하나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지난날의 문제만을 붙잡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것은 이미 강산이 열 번이나 변한 아득한(?) 과거사이니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전향적(前向的)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두 나라가 조금씩 양보하여 화해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

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6·25전쟁도 이제 60주년을 맞이하였으니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남과 북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도 생각해 보기도 한다.

한·일문제나 남북한간 문제는 이 모두가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잔치 만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갈라놓고 있는 것 같다.

옛 성현이 정치는 정(正)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서양의 격언과도 상통하는 것이며, 정치하는 사람은 잔재주나 말재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오직 올바르게 정직한 경륜을 펴나가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 겨울은 따뜻할 것이라고 한 기상예보와는 달리 새해 초부터 한파와 폭설이 들이닥쳐 물가는 뛰고 서민생활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일자리 창출이니, 서민생활 안정이니,

* 전주 가나데사

외치고는 있으나 정치하는 분들의 높은 경륜이 가일층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같다.

그런데 2010년 우리나라는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고 또한 G20회의를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앞서 말한 서민생활 문제와 더불어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문제, 노동문제 등을 위요하고 지역간, 사회계층간, 세대간 문제가 얹히고 설켜고 있으나,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른바 민주주의 방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정히 딱한 노릇이다.

각설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은 50년이상 지나면 일반적으로 골동품이 된다고 한다. 팔순(八旬) 넘게 살다보니 50년 넘은 물품이 제법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런데 사람도 60~70세만 되어도 인간골동품 취급을 당하기 쉬우니 이것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옛 사람들은 노소화합(老少和合)이니 노소동락(老少同樂)이니 하면서 노년층(老年層)의 경험과 소장층(少壯層)의 용기, 진취성을 상호보완시켜 나라나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요즘은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어지간한 문제는 PC 한번 푹툭 치면 다 알게 되고 해결된다는 식이 되고 노인층의 경험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란 있을 수 없는데 왜 물품이고 사람이고 세월이 좀 지나면 요즘처럼 홀대를 받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1950년의 6·25전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변화, 특히 서울의 변화한 모습은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 또는 천지개벽한 셈이라 할 수 있다.

광화문 앞의 6조(六曹) 건물, 그 건너편의 큰 기와집들, 화신(和信)건물, 아사원, 국일관, 명월관 등을 위시하여 많은 건물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서울역, 한국은행 본관 등이 남아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서울시 당국이 근래에 와서 경교장, 돈암장을 비롯하여 약수동 박정희 대통령 집,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집, 혜화동 장면총리 집을 문화재로 지정 복원·보존한다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1950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나라, 바꾸어 말하면 개인당 국민소득 70미불(1957년 Nathan Report)에서 20,000미불 가까이까지 짧은 기간에 발전한 나라는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없다고 한다.

OECD의 일원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벧짚, 돌과 흙으로 지은 집에 살고 지게, 달구지, 등잔불 등을 사용하면서 살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손수레, 리어카, 자전거를 거쳐 드럼통을 두들겨 차체를 만들고 그 위에 Jeep차 엔진을 올려 만든 시발택시, 새나라 조립차를 거쳐 포니(pony)차를 만들고 이제 세계 5~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된 것도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승용차가 2,000만대 가깝다하니, 1959년 4월 워싱턴 National Airport 주차장에 있는 2,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보고 이 정도 차만

우리나라가 가져도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얘기한 것을 회상하면 그야말로 모두가 꿈같은 얘기다.

의(衣), 식(食), 주(住)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보니 점심 한 끼를 도시락 밥만 갖고 와서 설렁탕 국물과 깍두기만 돈 내고 사먹거나 또는 메밀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던 1950년대는 잊어 가고, 쌀밥 한 그릇이 부럽던 시절도 이제는 옛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 대신 옛날 가난한 사람이 먹던 수제비, 호박죽, 보리밥 등이 건강식으로 인기를 모으는 세상이 되었다. 막걸리 한 주전자에 빈대떡 한 접시 시켜놓고 빈대떡 가운데 있는 돼지고기 한 점을 서로 먹으라고 양보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꽃 피우던 무교동 선술집이 친구들의 얼굴과 더불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래도 그 무렵에는 단골집에 가면 단골손님이라고 제법 손님대접을 해주었던 것 같다. 요즘 음식점에서는 단골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자주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집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것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하니 말이다!

음식점도 신장개업 후 한, 두 달은 손님 좀 끌으려고 바동바동 애를 쓰고 좀 장사 잘되면 배가 불러 점점 엉터리(?)가 되어 가고, 그러다 장사 잘 안 되면 문 닫고 이전하거나 다른 장사하면 된다는 식인 듯 하다. 그러니 친절이니 서비스니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도 서비스관계 불평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러한 단골 개념은 정치인 또는 사회명사라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믿고 올바르게 한 평생을 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지는 몰라도 어릴 적부터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꺼려하고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너무나 그 사람을 잘 아는 단골은 잘못하면 좋지 않는 밀천이 다 드러나게 되니 가까이하기 싫다는 논리인지도 모른다.

TV나 신문을 보거나 읽고 있으면 시청률이나 독자율을 늘리기 위해 비극, 미담 만들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드라마 특히 역사극의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다음 세대에 그릇된 역사를 심어주게 될까 두렵기도 하다. 너무나 과장된 기상예보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치하는 사람,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을 위한 지나친 인기 전술발언이나 망언에 가까운 발언 등에서도 더러 볼 수 있다.

1950~1960년대만 해도 선진제국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이제 우리도 의식주 면에서는 갖출 것은 거의 다 갖춘 셈이다.

현실에만 집착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아니고 전향적(前向的)·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동래불원춘(冬來不遠春)이라는 자세로 국가백년대계(國家百年大計)를 굳건히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Cro-Magnon인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최대·최상의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희망의 새해 경인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교**